

2024년도 추석 가정예배

신앙고백(사도신경) - 다같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 지금까지 지내온 것(찬301)

- 1절 지금까지 지내 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피 주시고 모든 일을 주안에서 행통하게 하시네.
- 2절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 3절 주님 다시 뵈을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 도 (가족중)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모이기 어려운 이때에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언제나 주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성령께서 늘 우리를 인도하셔서 평안과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 형제, 일가친척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주님의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시고, 또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누고 베풀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많은 것이 변해가고, 이 세상의 삶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세상을 능히 이겨낼 주의 자녀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편 128:1~6) : 인도자

- (시 128:1)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 128:2)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행통하리로다
(시 128:3)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시 128:4)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시 128:5)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시 128:6)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설 교(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받을 복) : 인도자

할렐루야!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가 되시며 자녀 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시편 128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복을 주십니다.

시편 128편 2절은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그게 왜 복인가?’라고 의문을 가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면 살수록 절감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마치 ‘깨어진 독에 물 붓기’ 같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수고했지만 수고한 만큼 차곡차곡 쌓이지 않고, 어디에서 빠져나갔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다 빠져나가 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으로 우리 인생의 깨어진 부분을 막아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수고한 대로 쌓이게 되고,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부모와 자녀가 각자의 자리에서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복을 주십니다.

시편 128편 3절은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정에서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열매 맺는 복을 의미합니다. 포도나무에 탐스럽게 열매들이 가득 달린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향긋하고 보기가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모 된 여러분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자녀는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했습니다. 감람나무는 어릴 때에는 30~50cm 정도로 크기가 작은 나무이지만, 장성하게 되면 30~50m까지 높고 튼튼하게 자라납니다. 비록 아직은 우리 자녀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작고 어리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꾸준히 자라나게 될 때 믿음의 거목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3.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을 주십니다.

시편 128편 5절과 6절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신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복도 주시지만, 또한 영적인 복도 부어주십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의 별명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시온에서 받는 복은 영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복, 믿음의 복이 개인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전체로 확장되어 가듯이, 내 당대에서 내 자녀들에게로, 또 그 후손들에게로 대를 이어 확장되어 가듯이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이런 세 가지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128편은 무엇이 이러한 복을 받는 그릇을 준비하는 일인지 1절과 4절에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1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함께 둘러앉은 가족들이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우리 가정의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최선을 다할 때 이러한 복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은혜와 복을 우리 가정 위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을 받고, 또 나누시는 모든 가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 나의 영원하신 기업(찬435)

1절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 하소서

2절 세상 부귀안일 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 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 하소서

3절 어둔 골짜기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 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 하소서. 아멘

주기도문 :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